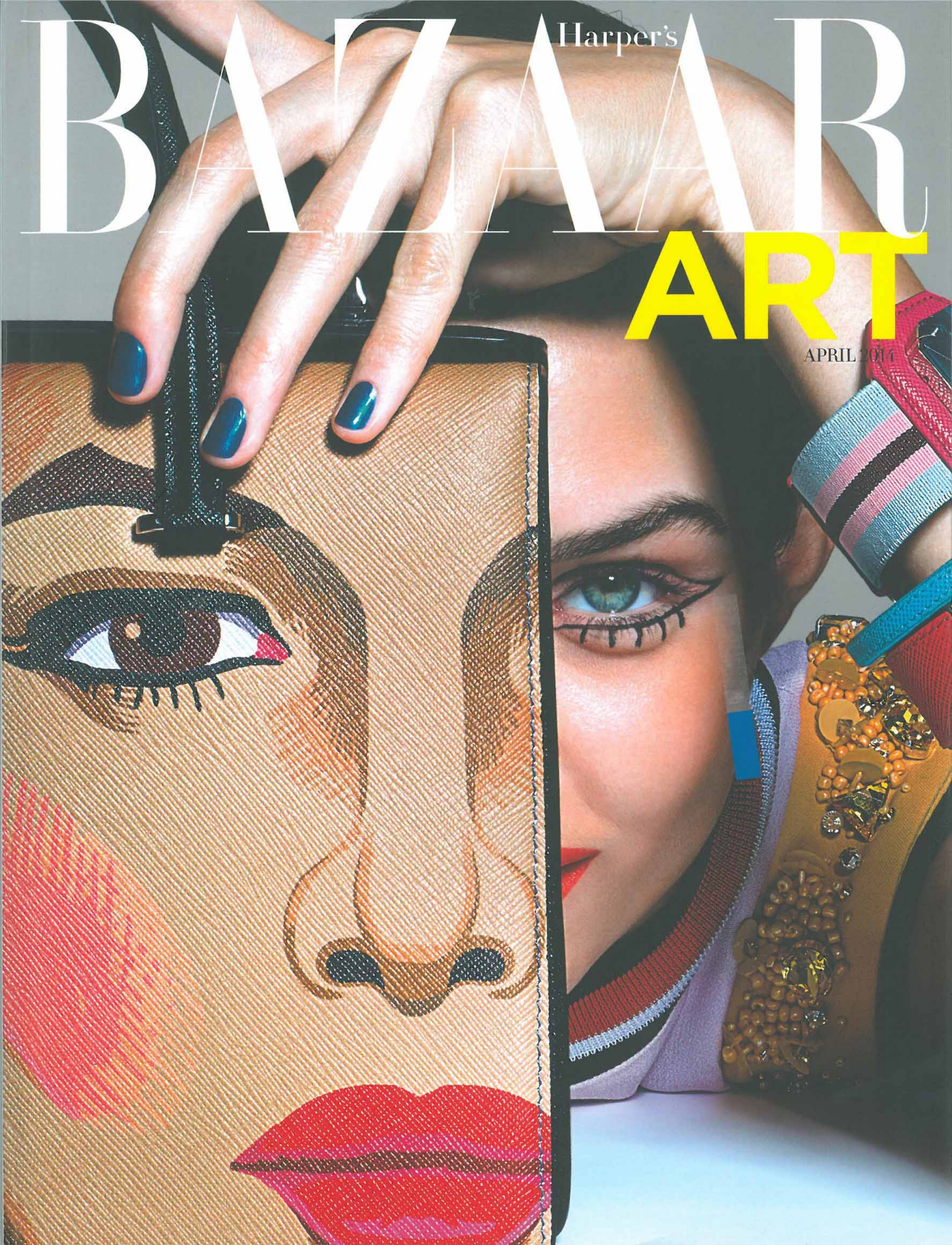


# Harper's BAZAAR ART

APRIL 2014







너와 나,  
우리의 삶을 향한  
로열티  
정연두

정연두 작가의 6년 만의 개인전 <무겁거나 혹은 가볍거나> 개막을 사흘 앞둔 오후, 그는 꺼칠한 얼굴과 떡진 머리를 하고도 “이 정도면 우아한 설치죠.”라며 웃었다. 설치가 막바지에 다다른 삼성미술관 플라토를 둘러보는데 가장 눈에 들어 온 건 시리즈로 묶이거나 덩치가 큰 작품 사이 코너에 걸려 있는 작품 ‘영웅’(1998). 어려 보이는 자장면 배달부가 폼 나게 도로를 질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이다. “런던에서 7년 동안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떠나기 전엔 비닐하우스촌이었던 분당은 동수가 새겨져 있지 않으면 분간도 할 수 없을 만큼 뽀뽀한 아파트촌이 되었던 거예요. 그 신세계에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당시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건널목에서 자장면 배달부가 곡예를 하다가 학생을 친 거예요. 피 흘리는 학생의 머리를 피고 있는데 오토바이 옆에 자빠져 있던 배달부는 구경꾼들 사이에서 거들먹거리며 ‘이까짓 껌’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근데 앰블런스가 오고 응급처치 요원이 일으켜 세우자 ‘아얏!’ 하면서 그 또래 아이 얼굴로 바뀌더라고요. 보름쯤 후에 그 친구를 찾아가 중국집 주방 뒤에 쪼그리고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동생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영웅’은 그 친구가 김스를 풀고 나서 2주 뒤에 찍은 작품이에요. 현실에서 그 친구는 자장면 배달부지만 상상 속에서는 할리데이비슨을 모는 터프가이죠.”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작업이 있었기에 2년 뒤에 ‘내 사랑 지니’(2001~)를 하게 된 것일 수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정연두 작가에게 ‘드림위버(Dreamweaver)’라는 수식어를 선사한 ‘내 사랑 지니’를 시작으로 아이들의 상상으로 그린 드로잉을 재현한 ‘원더랜드’(2003), 탑골공원에 있는 노인들의 추억을 작품화한 ‘수공기억’(2008) 등은 모두 결과물보다 작품의 제작 과정 안에 그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었다. “제가 창작을 하는 행위 자체에는 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야심을 갖는 게 어떤 면에서 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 상상하고 하면서 예술이란 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나누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사랑 지니’는 현실의 모습과 꿈을 재현한 모습이 나란히 이면(Diptych)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 존재하고 많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번 전시에는 초기 대표작들과 더불어 2점의 신작 '베르길리우스의 통로'(2014)와 '크레용팝 스페셜'(2014)이 소개된다. 전시 공간 플라토의 글라스 파빌리온에 상설전시된 로댕의 '지옥의 문' 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베르길리우스의 통로'는 3D 영상기기 '오쿨러스 리프트'를 이용해 바라보는 가상의 조각이다. 플라토 전시장을 완벽하게 복제한 가상공간 안에서 우리는 견고한 청동이 아닌 살아 숨 쉬는 인간의 '살'로 재탄생한 또 다른 지옥의 문과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첨단 기운을 뿜어내는 작품의 제작 동기가 흥미로웠다. "작년에 일본 미토에서 아트 레지던시에 참가했다가 거기서 안마사 한 명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취미를 갖고 있었어요. 낡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며 집과 안마사를 오가는 동안 일어나는 거의 매일 똑같은 일상을 기록하는 거죠. 미토란 곳이 도쿄와 후쿠시마 중간 지점에 있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일상을 열심히 기록한다는 게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고, 이것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오쿨러스 리프트라는 걸 선택하게 되었어요. 관객은 이것 쓰면 실제의 '지옥의 문'은 볼 수 없고 제가 만든 '베르길리우스의 통로'를 보게 돼요. 반대로 '지옥의 문'을 보는 사람은 '베르길리우스의 통로'는 볼 수 없죠." 그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하면서 받은 작가비로 안마사에게 카메라를 사줬다고 했다. 그는 안마사가 일상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서 반가웠을 것이다. 자신의 작업 역시 그가 일상을 기록하는 것과 같이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 다가서는 하나의 행위이고 그 과정의 증거로서 의미를 찾아나가기 때문'이다.

오쿨러스 리프트를 써서 보기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작품과는 반대로 '크레용팝 스페셜'은 가득 차 있다. "조명과 무대와 사운드 그리고 팝저씨들의 응원 소리까지 모든 게 가득 차 있는데, 실은 공허한 외침에 가깝죠." 그는 지난 작품들에서도 그래왔듯이 이 작품을 위해 팝저씨들과 긴밀하게 소통한 증거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을 보여주며 말했다. "무대에 대한 아이디어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공유했어요. '크레용팝 스페셜'에서는 플라토 로비에서 팝저씨들과 퍼포먼스를 한 영상이 틀어질 건데 그걸 하기 위해 초대한 50명 가운데 딱 한 명이 늦었어요. 마산에서 비행기가 지연돼서." 그들에게 팝저씨로서의 활동은 스트레스 가득한 일상을 놀이로 또 예술로 만드는 방법이었을테다.

나는 정연두 작가의 작품을 볼 때마다 그래미에서 '올해의 노래'로 뽑힌 로드(Lorde)의 'Royals'이 떠오른다. (이 노래가 인종차별주의적이라는 관점을 배제하고 봤을 때) 17살의 뉴질랜드 여자 가수가 쓴 가사는 작가의 생각과 맞닿은 점이 있다. '난 다이아몬드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 난 내 주소가 자랑스럽지 않아/ 다이아몬드 박힌 시계/ 자가용 제트기/우리랑은 상관없어, 우린 꿈에서 캐딜락을 몰지/ 우린 절대 왕족이 되지 못할 거니까/그런 사치스러움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 우린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위해/ 그런 환상 속에서 살게 해줘.' 정연두 작가가 지난 15년 동안 여러 작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 수공으로 판타지를 만들며 그 과정에서 피한 건 평범한 삶 속에서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가능성의 세계'를 탐색해보자는 외침과 연대가 아니었을까. 너와 나, 우리의 삶을 향한 로열티로서. 에디터/ 안동선

'영웅', 1998



'크레용팝 스페셜', 2014



오쿨러스 리프트를 이용해 '베르길리우스의 통로'를 본 영상, 2014

